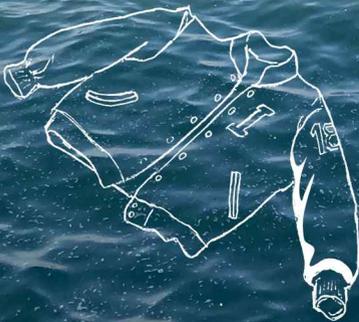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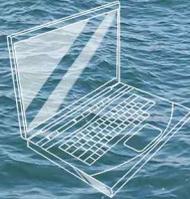


부산 청년의

패션 아이콘



김유진 박민규 박주현 양보원 조유진 최희수 김영랑

2020문화다양성리터러시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x 부산문화재단

부산청년의 먹고사니즘

순서

05 _ 들어가며

07 _ 알바생 노동 착취 고발 일기 | 김유진

17 _ 돌아온 청년은 왜 다시 떠나고 싶을까 | 박민규

29 _ 부산에게 문송합니다 | 박주현

39 _ 부산, 더 ‘힙’해지자 | 양보원

49 _ 청년 텔레마케터로 부산에 정착하다 | 조유진

59 _ 청년, 왜 한 등지에 머물지 못하는가? | 최희수

67 _ 부산에 청년은 없어야 한다 | 김영랑

들어가며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문화다양성리터러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주목한 아젠다는 '세대', 그 중에서도 부산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청년의 노동'입니다.

청년들의 주요한 고민은 '부산을 떠나지 않고도 내 일을 하면서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묻기로 했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는 포대를 만나 인터뷰한 기록을 이 책, <부산청년의 먹고사니즘>으로 갈무리합니다.

**알바생
노동 착취
고발 일기**

김유진

일배생 노동 착취 고발 일기

김유진

2019년 12월 XX일

지금 내 통장 잔액은 3만 원이다. 써야 할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없다. 성인인 나이에 부모님께 계속 용돈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부끄럽고, 아르바이트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구인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가 가고 싶은 곳 위주로 카페, PC방 등에 지원했지만 아르바이트 경력이 없는 나는 연속으로 퇴짜를 맞고 돌아왔다.

2020년 1월 XX일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이제 근무환경이며 시급이며 따질 여유는 없어졌다. 그러던 중 경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편의점 구인 공고를 보고 바로 면접을 보러 달려갔다. 면접을 보면서 질문은 딱 하나였다. “시급이 5,500원인데 괜찮은가요?” 전에 근무했던 분이 여기서 3년 동안 일하고 그나마 오른 시급이 5,500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은 내게 시급 높여줄 생각이 없으니 협상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급이 5,500원이라는 말에 고민됐지만, 경력이 없는 내게 일을 시켜준다는 곳이 또 있을까 싶어 일단 근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2020년 1월 XX일

오늘은 편의점에 처음 출근하는 날이다. 평소에 일머리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기에 오늘만큼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자며 스스로 다짐하면서 편의점으로 향했다. 유니폼 조끼를 걸치고 나와서 시재 점검을 시작했다. 포스기에 있는 현금과 포스기에 입력된 액수가 같은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10원 동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세어야 한다. 다음으로 담배 채고 점검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카운터 뒤편에 빼곡히 채워진 담배들을 일일이 세어 채고 수량과 같은지 확인했다. 여기까지가 출근하자마자 30분 안에 끝내야 하는 일이고 남은 5시간 동안 틈틈이 청소, 유통기한 확인 등을 했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나름 재밌는 것 같기도 하다.

2020년 2월 XX일

편의점에서 근무한 지 2주쯤 된 것 같다. 이제 웬만한 업무는 적응했는데, 포스기를 다루는 건 아직 너무 어렵다. 결국 오늘 역대급 실수를 저질렀다. 계산이 완료된 줄 착각하고 손님을 그냥 보내버린 것이다. 하필 그 손님은 6만 원어치나 사 가셨고, 그 6만 원은 내 사비로 메꿔야 한다. 평소에도 이런 작은 실수들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모이기는커녕 돈이 나가기만 한다. 3시부터 9시까지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며 일하는데 이럴 때마다 일을 그만둬야 하나 싶고 괜히 서러워진다.

2020년 4월 XX일

이제는 계산 실수도 하지 않고 시재 점검, 재고 정리 등의 업무를 능숙하게 해낸다. 편의점은 그냥 일일이 세고 정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라 나는 이제 거의 로봇처럼 일하고 있다. 명령어가 입력되면 그대로 출력해내듯이 아무런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래서 요즘은 문득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라는 회의감이 든다. 나는 4년제 국립대에 재학 중이고 나름 고급인력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데, 이 편의점에서는 그냥 계산하는 AI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XX일

처음엔 돈이 조금씩이나마 들어오는 것 자체에 만족했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나 보다. 요즘은 ‘내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겨우 시급 5,500원밖에 되지 않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부쩍 많아졌다. 나에게 대한 가치가 5,500원으로 매겨지는 것 같은 기분이다. 대학 졸업 후 취직했을 때도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나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느끼게 될 것 같은 불안함까지 느껴졌다.

2020년 6월 XX일

최근 알바를 하며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 다음 시간대 근무자와의 마찰, 근무환경 등 수많은 요소가 합쳐져 나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결론으로 도달했다. 마침 종강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사장님께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

2020년 7월 XX일

알바를 그만둔 지 일주일이지났다. 알바를 해왔던 그동안 내 노동력, 체력, 감정 등이 소모됐던 걸 생각하면 이때까지 받았던 월급이 너무 적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노동청에 사장님을 신고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근무 시작 전에 시급에 대한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의한 부분이었고, 사장님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 혼자 고민하니 답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난 다음 들어오는 알바생 또한 시급 5,500원이라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어차피 일할 사람들은 널렸으니까 시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제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쓴다는 사장님의 못된 심보를 혼내줘야 한다는 등 대부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나 역시 지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당연히 신고하고 싶지만 앞서 말한 여러 이유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고 있다.

2020년 7월 XX일

일을 그만두기 전부터 한 달 내내 해왔던 고민이 드디어 해결됐다. 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기로 했다. 먼저 노동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 접수를 했다. 형식에 맞춰 근무지, 사장님 전화번호, 근무일, 체불 금액 등을 기재했고, 그 후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됐다.

2020년 7월 XX일

민원이 접수된 다음 날 노동청에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나는 사장님과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내가 신고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체불 금액을 확인했다. 그 후, 사장님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못 받은 82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전전긍긍했던 것에 비해 아주 간단하고 순조롭게 해결됐다. 만약 사장님이 입금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면 사장님은 처벌을 받고 과정이 아주 복잡해졌을 텐데 다행이었다.

2020년 8월 XX일

노동청에 신고한 지 2주 정도 지났다. 사실 나는 사장님을 신고한 것을 후회한 적도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내가 사장님을 배신한 것 같아 죄송했고, 돈 몇 푼 받고자 일을 크게 벌인 것도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누군가에 의해 당연한 내 권리가 침해된다면 나는 당당하게 그에 맞설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다. 그 편의점에 아직 남아있는 근무자들도 나처럼 용기 내서 신고하고, 본인의 권리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나의 경험담을 들려주면 ‘요즘 같은 시대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곳도 있냐고 되물어온다. 지난 2018년 기준 부산 청년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알바생은 20.6%다. 이와 더불어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알바생이 64.8%, 식사 시간이 없다는 알바생이 64.5%였다. 최저임금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근무 환경까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알바생은 최대한 쓸 만큼 써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되고 있고, 알바생에게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 동기 A는 1년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하지 못했다. 그 역시 나와 비슷하게 사장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고깃집에서 일했었던 고등학교 동창 B는 불판 닦기 등 불필요한 업무로 고통받기도 했다. 원래 자기가 하는 업무가 아니지만 어찌다 보니 자기가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일하며 손님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경험도 털어놓았다.

청년들은 대부분 학생의 신분으로 돈을 버는 데 한계가 있어 아르바이트를 택했다. 아르바이트는 청년들의 노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알바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알바생에게서 가성비를 찾으려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고용주와 알바생을 대하는 손님을 비롯해 알바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돌아온 청년은
왜 다시
떠나고 싶을까**

박민규

돌아온 청년은 왜 다시 떠나고 싶을까

박민규

부산 중소기업과 같은 사업체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부산 외 타지역 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산 청년들의 삶과 부산이 직면한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번 기획에 맞춰 청년 예술인은 부산에서의 삶, 더 나아가 청년으로서 가슴에 품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다. 이를 들어보고자 오랜 친구인 '정구현'을, 오늘은 친구가 아닌 청년 음악인 밴드 'WINDA'의 기타리스트 '99'로서 만나봤다.



그룹명 : WINDA

멤버 : July 9th(리더, 보컬), 99(기타리스트, 서브보컬), Ugiyu(베이스리스트)

데뷔 : 2018년 Single [ALPACA]

대표곡 : 'Smile', '알파카'

Q.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나?

잘 지냈다. 너도 잘 지냈나? 그동안 왜 연락 안 한건가? 이렇게 가까이 살았다는 걸 까먹고 있었다.

Q. 그 점에 대해선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밴드에 대해 소개해주길 바란다.

밴드 WINDA에서 기타리스트를 맡고 있는 ‘99 정구현’이라고 한다. WINDA는 기타, 베이스, 보컬의 3인조로 활동 중이며 록과 팝 사이의 하이브리드인 ‘레트로스윙 록’ 밴드다. 지금도 앨범을 준비 중인데 내년 초에 EP 앨범이 나올 것 같다. 이번엔 약간 강력한 장르로 준비하고 있다.

Q. 개인적으로 나는 ‘Smile’이라는 노래가 좋더라. 다음에 싸인 앨범 하나 찾으면 한다.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준비하겠다.

오랜만에 인터뷰로 만난 어릴 적 친구 ‘99 정구현’은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큰 기타를 등에 지고 제법 무거워 보이는 앰프 장비를 한 손에 든 모습에서 음악인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풍겨 나왔다.

Q.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겠다. 이번 인터뷰의 주제가 부산 청년 예술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다. 기본적인 질문이다. 왜 음악

을, 밴드를 하게 되었는가. 직업의 선택 기준이 있었나?

중학교 3학년 여름 부산 록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본 것이 계기였다. 그때 기타리스트의 연주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동경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직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꿈을 꾸다 보니 지금에 이르게 된 것 같다. 꿈은 아직 추상적이긴 한데 최종적 목표라기보다는 계속 음악을 하고 싶다.

Q. 중학교 3학년 때부터면 벌써 10년이 넘었다.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이나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

초반에는 탐탁지 않아 했다. 그런데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며 실적을 내니 그때부터 나를 믿고 내 꿈을 응원해주기 시작하더라. 지금도 응원은 해주시지만 솔직한 말로 걱정이 더 큰 것이 현실이다.

Q. 예전에 서울에도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한다. 서울의 홍대는 한국의 예 술가들에겐 성지 같은 곳인데 그때의 경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나?

대학 졸업하고 2015년에 바로 올라가게 됐는데, 딱히 이유는 없었다. 일단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수중에 돈 100만 원만 가지고 혼자 올라 갔다. 운 좋게 신촌이랑 홍대를 나다니며 버스킹을 하다 알게 된 사람 덕분에 좋은 기회로 밴드에 들어갔었다. 그 밴드에서 홍대의 클럽이랑 인디밴드 무대에 설 기회도 생겼었고 그때 사람들이랑은 지금도 연락 하고 있다.

Q. 서울에서 기억에 남는 무대나 팬은 있나?

홍대 소극장에서 단독공연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무대와 그

때의 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처음해보는 단독공연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모든 장비를 가져와 공연해서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다.

Q. 서울에서 몇 년간 있다가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부분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

서울에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때 너무 건강관리를 너무 못해서 크게 아픈 적이 있었다. 다른 것도 많지만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기회가 되면 다시 올라가고 싶은데 이젠 5년 전처럼 막 올라가진 않고 준비를 탄탄히 해서 가고 싶다.

Q. 밴드의 입장에서 부산과 서울의 환경적, 분위기적 인식 등에서 차이가 있었나?

일단 서울은 판이 커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부산은 서울보다 좁다 보니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요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부산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부산이 좋다, 서울이 좋다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 밴드도 요즘은 전국구로 활동하려고 한다.

Q. 밴드 활동에 있어 외적으로도 서울에서의 삶은 부산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주거 등의 부분에서 부산과의 차이가 있었는가?

지역 간 물가 차이도 있었고, 부산과 다르게 서울은 전국구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가 서로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많았다. 서울에서

는 자취했는데 나 혼자라는 점이 제일 크게 다가왔다. 집값의 경우 밴드 수입이 적어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로 집세를 마련할지 밤까지 계속 걱정했던 것 같다.

지난 서울에서의 추억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99'의 눈에는 그리운 빛이 역력했다. 그 눈빛 속에서 젊음의 패기만으로 도전했던 청년 음악가가 마주했을 현실의 아쉬움도 묻어나오는 것 같았다.

Q. 서울 가기 전과 부산으로 돌아온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서울에 가기 전 나는 완전 불도저처럼 걱정 없이 도전했지만, 다녀오고 난 지금은 그에 앞서 조금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Q.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좋으니까.

'좋으니까'라는 당당한 한 마디와 그 순간 달라지는 '99'의 눈빛에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Q. 앨범도 사고 언제나 친구이자 팬으로써 응원하겠다. 그럼 부산에서 현재 일과는 어떤가?

구명 쪽 실용음악학원에서 기타 강사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외에는 계속 밴드 활동과 개인 연습으로 하루를 보낸다.

Q.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민감한 질문일 수는 있지만, 수입은 어떤가? 직업으로 삼을 만한가 아니면 부가적 수입이 있어야 하는가?

충분히 생활할만한 수입은 되는 것 같다. 돈이 잘되는 직업이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프리랜서다 보니 자기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국에는 공연과 행사가 없어서 일도 안 들어 오고 학원에 수강생들도 적어 힘든 게 현실이다. 원래 지금 9, 10월이 행사가 많은 시기인데 일이 거의 없다. 그래도 평소에는 음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수익은 되는 것 같다.

Q. 음반제작이나 스튜디오 이용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가?

나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겸하다 보니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다.

Q. 요즘 시국이 조심스러운 시국이라 그 영향이 클 것 같다.

너무 과하게 받아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Q. 정부의 정책적 지원책 같은 건 알아본 건가? 아니면 알림을 받은 건가?

정부 지원책은 우리가 직접 찾아본 건데 썩 홍보가 잘되는 것 같진 않았다. 혜택은 충분하지만, 그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일종의 공모전이라 거기서 선정되어야 받을 수 있다.

예술인도 직업이다 보니 이번 인터뷰에서 공연 수익과 활동을 위한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마련하는지, 또 정책적 지원 같은 건 없는지가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였다. 수익은 생각 외로 안정적인 것 같아 다행이라는 감상이 들었지만,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같은 경우는 혜택은 충분하나 홍보와 접근성에서 아쉬움이 느껴졌다.

'99'가 신청했다는 정책에 대해 찾아보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 준비금 지원 ? 창작 디딤돌' 제도가 매년 2회 120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1인 300만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었다. 선정기준도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인정을 받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 예술인 활동 증명 절차가 생각 외로 복잡하고 까다로워 새롭게 예술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 예술인들은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감상을 받았다.

Q. 몇 달 전에 방과 후 기타수업을 진행하는 걸 봤다. 이건 어떻게 하게 된 건가?

아는 동료를 통해 학교에 추천을 받아 면접을 보고 하게 됐다. 이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냥 추천을 받은 거다.

Q. 학생들을 가르치다니 선생님의 모습으로 되게 멋지고 보람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바라는 게 있나?

지금은 코로나라서 다들 힘들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거나 종식이 되면 조금 더 지원도 지원이지만 무대와 같은 우리가 자유롭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울이 부산보다 좀 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같다.

Q. 서울의 흥대가 한국 예술의 성지인 것처럼 부산에서도 흥대와 같이 나름 예술에 자유로운 곳은 있는가?

흥대 만큼은 아니지만, 예전에 서면과 남포에서 버스킹을 많이들 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시국도 시국이고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아예 못한다. 이러한 사정은 이젠 흥대도 마찬가지일 거다.

Q. 그럼 당장에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갈 기회가 있다면 갈 것인가.

어디를 가도 똑같지만 좀 더 기회의 장이 열려 있는 서울이 낫다면 더 낫다고 본다.

Q. 공연예술에 있어 인식도 그렇고 자유로운 무대와 기회의 장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WINDA에 대해 흥

보해도 괜찮다.

홍보라기 보다는 우리디밴드들이 많기 WINDA의 음악과 또 다른 대중음악들도 좋지만, 생각 이상으로 부산 안에 멋진 인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주었으면 한다. 인디 문화에 관심을 주었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사적인 이야기가 아닌 직업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평소에 알던 면과는 다른 면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번 잡지 주제인 부산 지역 청년들의 삶과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볼 점을 상기시켜주었다. 이미 부산과 서울이라는 다른 환경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두 도시의 공연예술에 대한 인식과 환경 차이를 잠시나마 체감할 수 있었다. 부산에서 음악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그게 돈이 되냐’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지만 서울에서는 ‘그럼 홍대에서 공연하겠네, 보러 가도 되냐’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이런 인식차도 있지만 인프라 면에서도 살짝 아쉬운 점이 묻어 나왔다. 서울과 부산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담당한다고 한다. 부산문화재단에도 예술인 지원책 및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놓았지만, 서울이나 대구, 대전 등에 비해 정책적 홍보와 설명에서 조금 부족함이 엿보였다. 하지만 부산문화재단도 청년의 부산 외 도시로의 이탈을 문제로 인식하고 ‘부산문화재단 2030 비전’을 발표해 앞으로의 정책적 행보는 상당히 기대된다.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구현이와 헤어질 때 기타와 앰프를 잠깐 들어 주었다. 자신감 있게 들었지만 두 장비 모두 겉으로 보기보다 무게가 상당했다.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하단에서 구명까

지 40분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구현이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은 커녕 '무겁지 않냐'는 질문에 '괜찮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런 건 감수 해야지'라며 되려 기분 좋게 웃어 보였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꿈이라는 희망을 보며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밝은 청년의 모습을 잠시나마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모든 청년을 응원한다.

**부산에게
문송합니다**

박주현

부산에게 문송합니다

박주현

부산이라는 도시는 문과 출신들에게 가혹한 존재였다. 이들은 고향 부산에 남아 있고 싶다면 대체로 공무원 시험을 택한다. 기약 없는 ‘기회의 땅’ 서울을 향하거나. 대부분 둘 중 하나였다

부산 대학생은 왜 부산기업을 택하지 않을까

B 선배는 올해 휴학을 했다. 휴학하고 나선 나와는 성격이 잘 맞아 이따금 밤이 되면 술잔을 기울였던 ‘술친구’였다. 그랬던 선배가 갑자기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술친구를 잃는 순간이었다. 선배는 담담하게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과정을 내게 설명했다. 민법, 경제, 회계... 시험과목을 읊어댔다. 앞으로의 시간이 시험 스트레스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머릿속으로 그려졌다. “나중에는 (감정평가사 시험 현장 강의를 진행하는) 신림동 고시촌에 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와의 마지막 술자리에서, 왜 전문직을 하려는지 궁금해 이를 물었다. 그는 당연한 이유를 질문했다는 듯이 “부산에서 살고는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라고 답했다. “일단 부산에 기업 수가 적거든”라며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몇 없는 부산기업에 들어갈 바에 ‘사’자 붙은 직업을

택하겠다고 설명했다. 선배 말이 옳았다. 부산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선택은 지극히 당연해 보였다.

지난 9월 부산상공회의소는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이 몇 개인지 조사했다. 결과는 초라했다. 고작 1,000개 중 34곳뿐이었다. 이들의 매출은 전체 중 1.4%(2,250조 9,475억 원 중 31조 7,845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 소재 기업은 754개였다. 부산 매출 상위기업은 르노삼성자동차, 부산은행, 한진중공업 순이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최근 코로나19로 판매 부진에 의해 부산공장 가동을 멈췄다. 부산은행은 올해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인 30명 채용한다. 한진중공업은 몇 해 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벗어났다. 매출 상위기업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떠할까.

B 선배 말을 듣고는 고등학교 친구 S의 빼있는 한마디가 떠올랐다. “부산기업들이 부산 사람만 뽑는 거 아니잖아” S는 지난달 군대에서 전역했다. 오래간만에 만나 남포동에서 점심 한 끼를 먹었다. 이제 제대도 했으니 복학하냐는 나의 물음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역시 부산 소재 대학 인문계 대학생이었다.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확고하게 다짐했다. 그 이유로 “비싼 등록금을 들고고도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라고 말했다. 수공이 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사립대 인문사회계열 1년 평균 등록금은 630만 7천 원이다. 이만큼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은 쉽지 않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2018년 부산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2.3%를 기록했다.

10명 중 4명이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백수 신세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그의 선택은 지극히 합리적이었다. 그는 자퇴하고서는 어머니의 가게를 돕다가 공무원 시험을 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에 남고 싶은 문과들에게는 반강제적인 ‘공시’

며칠 전 대학 친구 J를 만났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문득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궁금했다. 설마 했지만 결국 그 역시도 공시생이라는 미래를 그렸다. 왜 공무원을 원하는지 더 들어보기로 했다.

“부산에 엄마, 아빠, 친구 수민이, 소희가 있잖아”

“나는 부산에 계속 있고 싶어. 근데 부산에 이과들 일자리는 있을지 몰라도 문과들 일자리는 없는 거 알잖아. 결국, 공시칠 수밖에 없지 뭐.”

“우리 아빠가 공무원인데, 어릴 때는 길이 공무원밖에 없다고 하더

라. 근데 진짜 어른이 되고 보니까 공무원이 길이더라고”

실례로 지난 7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시험에 준비하는 80만 4천 명 중 28.3%가 일반직공무원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근데 공시하기 싫어… 그래도 사기업에 취직할 자신은 없고 억지로 하는 거지” 그의 말이 뇌리에 박혔다. 할만한 게 없으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시험에 투신한다는 현실이 먹먹했다.

또 다른 공시생 K 선배를 만났다. 4학년 막 학기인 그는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한국사 문제집을 옆구리에 끼고 있던 그에게 “시험 준비할만해요?”라고 물었다. K 선배는 쓴웃음을 지으며 나직이 “힘들어”라고 토로했다. 친구 J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에게도 공시생의 길을 택한 이유를 질문했다.

“학점도 잘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데, 여기 안 떠나려면 결국엔 공시잖아”

“공시하면서 뭔가 4년제 대학생이라는 스펙이 무용지물 되는 느낌이야. 인서울 애들도 공무원 준비하는 거 보면 자기 삶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공무원이라는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 같다”며 J는 씩씩하게 말했다. “능력이 아까워”라는 말을 덧붙이며.



부산에 있거나, 서울로 떠나거나

누구든지 연봉이 많은 직장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어려워 보였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연말정산 신고에 따른 2018년 전국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3,647만 원이었다. 서울은 4,124만 원으로 이보다 477만 원 더 받는다. 부산에서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 부산 평균 연봉은 3,370만 원으로 서울보다 754만 원 적게 받는다. 이러한 통계를 비춰볼 때 서울로 향해야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생긴다.

K 선배는 자신의 친동생 얘기를 꺼냈다.

“고3 동생은 나와는 다르게 대학을 인서울로 갈려고 해”

“어머니가 동생이랑 나를 얹혀놓고 말씀하셨어. ‘같은 5억에 서울은 변두리에서 좁은 집에 산다. 부산은 그 돈으로 대개 좋은 집에서 산다’라고 설득했지만, 동생은 단호하게 서울을 말했지”

K 선배는 우스갯소리로 “서울에 주택 5,000만 세대가 있으면 국민 모두 서울로 갈걸?”이라고 말했다. “서울을 향한 환상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진 영원할 거야”

그리고 그의 친동생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P가 여기 있다. 인서울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에 좌절한 대구 출생인 P는 서울이라는 사회·경제·문화적 기득권에 편입되지 못한 채 지방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고스란히

달고 있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서서히 죽어가는 대구보다 대도시인 부산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부산에 내려왔다. 밖에서 봤을 때 부산은 ‘그래도’ 도시가 활력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크나큰 오산이었다. 부산을 정착한 지 1년이 지난 무렵, 어느 한 선배가 P에게 “졸업하면 부산에 친구들 없을걸? 다 서울로 떠나서”라고 일러주며 암울한 현실을 깨닫게 해줬다. 그는 “아 결국, 부산도 최종 목적지는 서울이구나” 한탄했다.

작가 박완서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세계사, 2015)에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기에는 시대라는 날줄이 너무나 험했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산 대학생 B, S, J, K 그리고 필자 P는 1990년대 생으로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역동의 한국사를 직격으로 맞은 1931년생 박완서처럼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기에는 시대라는 날줄이 너무나 험’하게 느껴진다. 언제까지 부산은 문과에게 가혹할 것인가. 오늘도 부산 문과 대학생들은 밥벌이를 위해 서울로 발걸음을 옮기거나 공시 준비를 한다.

**부산,
더 '합'해지자**

양보원

부산, 더 ‘힙’해지자

양보원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다. 10년간 부산 청년 인구는 20%가 넘게 급감했다. ‘청년 인구 유출’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선 부산이 청년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힙’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Chapter 1. 취업은 ‘힙’할 수 없나요

‘취존(취향 존중)’부탁. 청년들이 기성세대들에게 바라는 바이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꼰대’들은 청년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 1순위이다. 그렇다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 단연 ‘힙한’ 사람이다. 힙하다는 것은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대세에 따르기보단 자신만의 취향을 좇는 ‘힙스터(힙한 것을 즐기는 이들) 라이프’를 즐기며 ‘나다운 나’에 몰두한다.

그러나 개성을 추구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삶은 길어야 20대 중반 즈음에 끝난다. 취업이란 장벽 앞에서 청년들은 고유의 색 위에 기업이 원하는 색을 덧칠한다. 개성을 잃어버린 ‘회색 인간’이 된 이들은 결국 자존감을 상실한다. ‘20대 베스트셀러’ 코너에 ‘자존감’에 관한 책이 준비한 이유다.

자존감을 잃고 싶지 않은 청년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한다. 자신을 표현하며 돈을 버는 일에 도전한다. 예술적 재능을 살려 공방을 차리거나 창작활동을 한다. 자기 생각을 펼치기 위해 1인 미디어에 도전하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에 뛰어든다. 이런 활동을 통해 ‘먹고 살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들은 남성 253만 원, 여성 199만 원으로 일반 직장인보다 낮은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이익 추구’보다 ‘자아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청년의 경우 수입은 더욱 낮아진다. 그마저도 약 60%의 청년 사업이 2년도 안 돼 문을 닫는다. 결국 청년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자존감을 잃고 ‘회색 인간’으로 살 것인가, 자존감만을 지킨 채 ‘백수’로 살 것인가.

Chapter 2. 청년, ‘로컬크리에이터’가 되다

나 또한 대학생이 되며 이런 질문에 맞닥뜨렸다. 어렸을 적부터 가장 하기 싫은 직업이 ‘회사원’이라고 말했던 나는 매일 사무실에 앉아 ‘영혼 없이’ 일하는 삶을 살긴 싫었다. 그러나 창업에 도전하기는 망설여졌다. 창업은 막강한 자본력이 필요하고 만약 실패라도 하면 빚더미에 앉게 되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가진 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았다. 취업하기 전까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 미디어 단체 ‘라:]온에어’를 만들었다. ‘즐거운 방송’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DJ들이 제한 없이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게 했다. 각양각색의 DJ들 속에서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부산 청년’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부산이라는 지역과 연관 지어 말하기를 즐겼다. 고유한 개성을 지역의 특성 및 자원과 연결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 이것이 바로 ‘로컬크리에이터’ 활동이었다.

우리 팀 외에도 부산에는 다양한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 잡지를 발간하고, 지역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지역을 기

반으로 한 독립영화를 제작한다. 이것은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활동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다. 이렇게 발굴한 로컬의 정체성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도 한다. ‘한 달 살기’ 열풍을 불러온 제주도가 그 예이다. 과거 제주도는 ‘엄마 아빠의 신혼여행 장소’ 또는 ‘수학여행 장소’라는 다소 올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를 기반으로 한 로컬크리에이터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제주도는 고유의 감성을 가진 ‘힐링’의 대명사로 거듭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을 재해석하고 창의적인 지역 기반 브랜드를 육성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세계적 석학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그의 저서 「도시와 창조계급」에서 “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은 사람들로, 도시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창조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뚜렷한 개성을 지닌 ‘힙한’ 청년들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는 것은 청년을 위한 일인 동시에 부산을 위한 일이다.

Chapter 3. 부산은 ‘답정너’?!

그러나 부산시는 ‘답정너’인 듯하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의 이 신조어는 부산과 청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어 준다. 과연 부산에서 창조적인 로컬크리에이터 활동이 가능할까? 내가 로컬미디어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든 생각은 ‘아, 이 일로는 딱

고살 수 없겠구나!’였다. 먼저 활동에 뛰어들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어려움은 이러한 생각에 확신을 주었다.

대부분의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적은 수입은 곧장 생계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 내일 먹을 음식을 걱정해야 하는 삶은 ‘지역 가치’와 ‘자아실현’이라는 꿈을 좇은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했다. 지금도 많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활동 중지 위기에 놓여있다.

로컬크리에이터 활동은 부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부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활동이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다양한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육성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줄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가 주도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 창업지원 사업은 해마다 200개 내외의 팀을 선발해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업체의 대부분은 제조업과 ICT 산업에 종사한다. 작년 선정업체를 조사한 결과 지식서비스업 두 곳, 기타 세 곳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제조업과 ICT 산업에서 선정되었다. 식품 카페, 수공예패션미용, IT앱게임, MICE관광출판, 교육 서비스, 쇼핑몰무역 유통업에선 단 하나의 업체도 선정되지 못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로컬크리에이터들을 선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에서 총 8개 팀을 선발하는 데에 그친다. 이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로컬크리에이터에게 힘을 실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부산문화재단 역시 청년예술가창작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다. 지원 분야가 공연, 시각, 문학으로 분류되는 기초예술 분야와 초연, 재구성으로 분류되는 청년연출가 분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SNS, 팟캐스트, 지역 잡지 등 다양한 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공모전에 입상해 일회성 상금을 받는 정도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전부다. 각종 지원 사업이 로컬크리에이터들의 활동범주를 포괄하지 못한 탓에 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

Chapter 4. 콘텐츠 사업하기 좋은 ‘힙’한 도시 부산으로

미디어 단체, 1인 크리에이터 등의 콘텐츠 사업은 청년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인 동시에 언택트 시대의 유망 직종이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 사업의 특징이 있다. 바로 수익 창출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는 기초자본이 넉넉지 않은 대부분의 청년이 콘텐츠 사업에 진입하기를 망설이는 까닭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청년 크리에이터 기본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주어지는 취업지원금과 같이 지원금이 한 달에 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다면 청년들의‘먹고사니즘(먹고 사는 일만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은 제작하게 될 콘텐츠에 ‘부산’의 모습을 녹여내야 한다. 개성 있는 청년들의 눈에 비친 부산의 모습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지역을 떠난 청년들이 콘텐츠 사업을 위해 부산을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술가와 크리에이터가 모이는 문화 중심도시 부산’은 상상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잘 구축된 인프라가 제공되는 서울을 뒤로 한 채 부산으로 발걸음을 돌릴 이유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은 창의력 넘치는 청년들을 끌어들이어 부산이 향후 10년 문화중심도시로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각자의 개성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담아낸 부산의 모습은 부산에 잘 맞는 ‘힙’한 옷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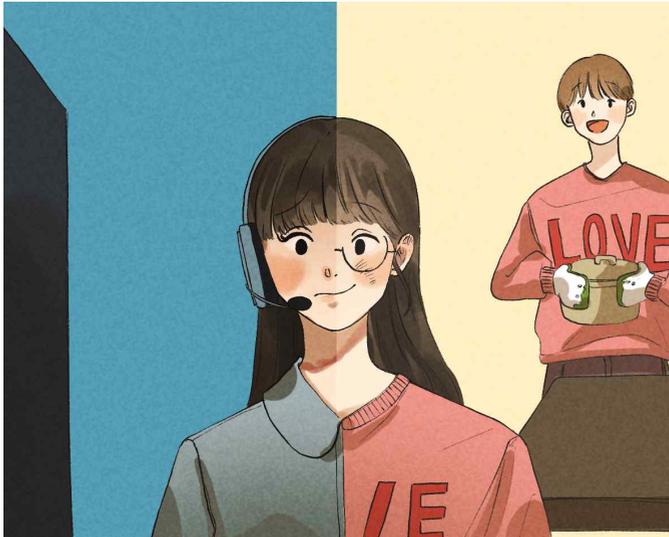
청년 텔레마케터로 부산에 정착하다

조유진

청년 텔레마케터로 부산에 정착하다

조유진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 부산에는 대기업이 거의 없으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시에서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부산에는 중소기업이 많고 그에 따른 정책 지원도 많은데, 근무하는 청년들은 과연 회사 생활에 만족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취업의 문에 다가가기 쉬운 ‘콜센터’에 다니는 직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앞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인 31살 청년입니다. 현재 부산에 중소기업에 3년 7개월째 다니고 있으며, 텔레마케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텔레마케터가 자세히 어떤 직업인가요?

텔레마케터는 기본적으로 전화를 주로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구매자에게 상품 홍보와 판매 활동을 하는데요, 오는 전화를 받는 인바운드 업무와 고객한테 전화를 나가는 아웃바운드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저는 인바운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이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나요?

원래 제가 대면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했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얼굴을 드러내는 직업을 많이 힘들어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비대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늘 대면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했었는데, 비대면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 힘들다고 소문난 ‘콜센터’를 체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임금 수준과 집이랑 가까운 곳의 회사를 찾다 보니 이 회사였어요. 제가 입사할 때는 콜센터에 취업하기 쉬웠지만, 요즘은 입사조차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Q. 콜센터의 출·퇴근 시간은 언제이고, 급여는 어떤가요?

콜센터 특성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므로 대부분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서 특성상 순환 근무가 아니라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사이에 1시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입사했을 때 보수는 적당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자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본급이 대부분 인상돼 근무시간도 줄어들고, 야간 수당들이 축소되면서 지금은 딱히 많이 받는다고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요.

Q. 회사의 분위기나 복지는 어떤가요?

우리 회사의 경우 모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텔레마케터라는 직업이 힘든 일이다 보니 동료애가 쌓여 서로 의지하는 것 같아요.

텔레마케터 직종 특성상 여성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여성에 관련된 복지가 잘 되어있어요. 특히 육아 휴직과 출산 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회식비를 지원해주고, 동아리 활동을 위한 클래스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도 주고, 상여금도 챙겨주고 있어요.

Q.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나요?

요즘에는 고객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주는 사람도 많은데요. 하지만 아직도 거친 욕을 하거나 다짜고짜 소리는 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게다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아주 당황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Q. 혹시 이럴 때마다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나요?

가끔 이런 전화들이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이 전화를 받고 나면 30분 정도 밖에 나가서 쉬고 오라고 하시는 편이에요.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고 올 수 있을 정도로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 고객이 나한테 화난 것이 아니라 회사에 화난 것이다'라고 가슴에 새기면서 절대로 상처받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요.

Q. 현재 이 업무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솔직히 이직을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콜센터에 취직한 이유는 얼마나 힘든지 느껴보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이직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3년 7개월 동안 콜센터가 얼마나 힘든지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해본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 직업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집 가면 통화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데 저는 아직도 집 갈 때마다 생각나서 힘든 것 같아요.

Q. 부산 중소기업에 다니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활용해본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었어요. 필요한 서류들도 정말 많았고 절차들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서 힘들었지만 이자 1.2%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정책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주변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 했었어요.

Q. 중소기업 청년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힘든 점이 없었나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 정책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어요. 제가 상사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었는데, 상사도 처음 들어드는 정책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 같아요. 필요했던 서류는 아마 10개 정도 되었을 거예요.

Q. 현재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3년 동안 적금을 들면 많은 이율을 주는데, 소득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정책의 대상들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Q. 현재 부산에 거주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부산에 거주하

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부산을 떠나 서울에 취직했는데, 높은 임금을 받고 일했지만 엄청 높은 집값에 좌절하고 부산에 내려와 계속 일하는 모습을 보고 부산에 남기로 했던 것 같아요.

Q. 청년이 느끼기에는 부산의 일자리가 어떤가요?

친구들도 직장인인데 한 친구는 부산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한 친구는 공단에 영업지원단에 소속되어있어요. 부산의 중소기업들이 강서나 기장 등 외곽에 있어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검색해보면 부산의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직 위주이고, 공단들은 대부분 강서나 기장 등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힘든 것 같아요. 부산의 교통이 좋은 곳들은 대부분 콜센터가 들어서 있어요.

Q. 부산에서 살면서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부산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부산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너무 복잡하지 않고 인프라는 그나마 갖춰져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남자들이 월 300만 원 이상 벌 만한 직장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현재 잠시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서 돌아오지 못해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의 집값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Q. 결혼을 준비하면서 힘든 점이 없었나요?

결혼 준비 자금 중에서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많은 돈이 들었어요. 나머지 전셋값으로 사용했어요. 신혼집을 보러 다녔는데 브랜드 아파트가 3억이라서 꿈도 못 꾸고, 소형 아파트부터 시작했어요. 신혼부부가 꿈꿀 수 있는 아파트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소형 아파트는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신혼집을 구할 때 교통이 편한 연산역 근처에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고 연식이 오래된 집이라 역세권을 포기하고 버스만 다니는 곳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Q. 부산 청년으로서 부산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부산시가 청년 정책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청년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어도 홍보하는 곳이 한정적이라 가끔 신청 기간을 놓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정책에 관해 얘기해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알 수 있는 루트가 매우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신혼 부부이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부산에 중소기업은 기장이나 강서와 같은 교통이 불편한 외곽 쪽에 많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연봉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부산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청년 일하는 기쁨의 카드’, ‘중소기업 청년 자금 대출’, ‘청춘 드림카드’ 등 지원하는 정책이 많지만, 많은 청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

는데 아무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부산시는 청년정책플랫폼 이외의 홍보 채널을 확장시켜 많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청년, 왜 한 둥지에 머물지 못하는가?

청년 근속 문제와 괴롭힘 문화 해결 방안에 대하여

최희수

청년, 왜 한 동지에 머물지 못하는가?

청년 근속 문제와 괴롭힘 문화 해결 방안에 대하여

최희수

청년, 일자리를 떠나다

“신입으로 들어와 배울 때는 돈 생각하지 말고 배워”

26세 청년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가 소개해준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 19세의 나이로 첫 취직에 성공했다. A씨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떴지만, 이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된다. 이후 A씨는 에어컨 수리 보조, 방송 장비 설치 기사, 비파괴검사 조선기자재 검사원으로 이직을 반복했다.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 임금근로자는 69.6%였으며, 근속기간은 평균 13.8개월에 불과했다. 또한 직장을 그만두게 된 데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47.7%)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A씨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도 이와 비슷했다. A씨는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에 들어가 빨리 가까이에서 업무와 기술을 터득하고자 했으나, 대부분의 사업자는 “신입으로 들어와 배울 때는 돈 생각하지 말고 배워라”고 하나같이 말했다. A씨는 “규정 근무시간이 지나 연장근무, 야

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는 만큼 그에 맞는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었다”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근속기간은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한민국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웹사이트인 알바천국이 발표한 ‘2015 중소·중견기업 채용계획 및 인식 조사’에서 중소·중견기업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2.4년에 불과하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에 근속이 과연 청년들에게 필요할까 하는 의문일 수 있지만, 문제는 스스로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닌,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통받아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다. 즉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떠나는 데에는 타의적인 요소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근속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오고 있지만, 오히려 혹평을 듣는 경우가 다수다.

국가와 부산시의 근속 정책, 과연 실효성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사업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본인이 일정 금액을 매달 저축하면 정부의 취업지원금과 기업의 기업기여금이 함께 적립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2~3년 동안 한 회사에 근속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국가사업이 청년들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

년이 어떤 이유로든지 퇴사를 하면 그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오히려 폭언, 폭행 등의 ‘갑질’을 일삼는 사업주들도 많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이직을 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조건은 까다롭다. 퇴사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 한해 단 1회만 재가입이 가능한데, 이를 입증하기까지의 과정이 힘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지난 2019년 7월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갑질을 당한 직장인 중 62.9%가 갑질을 경험한 후 참거나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부재할뿐더러, 신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조치되는 행정적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신고율조차 3%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퇴사 사유가 사업주에 의한 것이

라고 입증하기 쉬울까? 차라리 제도의 혜택을 보기를 포기하고 직장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도 자체적으로 청년 근속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는 부산시 경제진흥원 주관으로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생애 1회,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역시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사업 참여 중 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그 외에도 부산은 시 외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최대 2년 동안 전기차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 부산 청춘드림카 등의 정책을 진행 중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한 청년 근속 정책들이 청년들의 근속을 효과적으로 도와준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세 정책 모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목적보다는 혜택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청년들이 직장을 떠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아닌, 청년들에게 근속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인다. 근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혜택이라는 당근으로 직장에 남아있기를 회유하는 것이 아닌, 청년이 애초에 그 직장을 떠나고 싶지 않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일 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이 청년 노동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책을 홍보한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이 아닌, 청년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갑질에 눈물짓다

그리고 여기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에서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가 있다. 그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당한 대우로 인해 큰 다툼으로 이어진 적이 있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A씨도 청년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부당대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두 번의 부당한 부분은 넘어갔지만, 비슷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후 상대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아무렇지 않게 그 문제를 참고 넘어가야 했다.”

지난 2019년 7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기업인식과 대응조사’에 따르면 기업 중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 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장 예절, 개인 시간에 대한 세대의 인식차, 피라미드형 위계 구조가 주로 뽑혔다. 청년들에게 가해지는 부당대우는 일시적인 병리적 현상이 아닌,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괴롭힘을 막기 위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업무상 적정범위, 처벌 방법 등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여전히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9년 9월 청년유니온에서 2030 직장인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청년유니온은 ‘여전한 청년 실업의 현실과 노동권에 대한 열악한 인식은 처음 일을 시작하는 청년이 겪는 일터의 불합리한 문제나 개인이 겪는 고통을 단지 원래 그런 것,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도록 해왔다’고 말한다. 청년들은 부조리에 맞서 대응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굳건하게 이어져 온 회사의 위계질서와 악습에 부딪혀 개선을 포기하던지, 직장을 포기해야 했다. 그렇게 청년은 또 다른 청년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이후,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에서는 괴롭힘이 줄었다고 느낀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민간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보다 낮았다. 즉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중소기업일수록 근로환경이 더욱 열악하며, 개선 속도도 느리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된 후 각 기업에서 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괴롭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더욱 확실하고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년이 직장에서 더이상 서럽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이 청년을 서럽게 해 자리를 뜨게 만드는가? 청년이 원하는 것은 오직 자리만 주어진 일터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무조

건적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양적인 수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일자리 늘리기에도 바쁜 것이 현실이지만, 동시에 직장 내 문화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노동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부산에
청년은 없어야 한다**

김영랑

부산에 청년은 없어야 한다

김영랑

“성적이 좋아서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면, 지역 같은 건 상관없었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서 예체능 대회에 나갔고 상도 꽤 많이 탔지만 결국 인서울 대학에 떨어졌고, 집이 부산이니까 당연히 부산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가게 된 1학년 MT. 팀을 나눠 강제로 게임에 참여하고 거칠게 술을 마시며 노는 분위기에 꽤 큰 충격을 받았다. 또 학과 간부들이 학생회비로 회식을 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3년하고도 더 남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확실했다. 내가 챙겨야 할 것은 오로지 학습과 학점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학 생활은, 대학 밖에서 경험한 ‘대학생 인턴’제도

나는 원래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을 잘 하지 않았어. 선택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을 주로 갔지. 그러다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인턴’제도를 신청하고 하게 됐어. 처음 만난 선배와 일도 해보고, 부산의 크고 중요한 행사 준비도 참여해보고... 특별한 경험이었어.

취업 자소서에 적힌 인턴 경험에 대한 서술을 보면, 한 게 참 많아

보여. 그런데 인턴은 학교나 직장에서 주는 교통비 정도만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인턴들에게 기대하는 게 없고, 인턴들도 직무 경험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체험 수준이야.

기업과 기관이 정말 인턴 직원이 필요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뽑는다면 좋겠지만, 지원금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뽑는 거니까, 매 학기 같이 끼워지는 건전지나 다름없어. 아주 어렵지 않은 일을 시키고 퇴근시키는 인력인 거지.

대학생 인턴 제도 덕분에 직업 세계와 사회에 대한 눈을 뜨는 건 사실이야. 이 제도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하지만 질적으로 달라질 필요는 분명히 있어.

누군가에겐 간절함, 또 누구에겐 ‘꼰돈’.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공무원 자녀는 국장(국가장학금, 이하 국장)의 대상이 아니야. 규정상 아닌 건 아니지만, 부모의 월 소득분위로 국장 수여가 결정되니까, 수익을 숨길 수 없는 유리 지갑인 공무원의 자녀는 결국 국장의 대상이 아니게 돼. 국장의 혜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은 무조건 찬성이야. 그런데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사는 어느 친구는 집이 사업을 하는데 국장 혜택을 받더라고.

부모의 소득 분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지. 그런데 대학교에 다니면서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끼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게 과연 정당할까? 나는 지금 대학생이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고민이 들어.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부모 소득분위를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공인 인증서 절차를 통과하고, 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 등록금을 납부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지. 이럴 바에는 그냥 모든 학생이 한 학기에 50만 원씩 내는 게 각자 부담도 적고 나올 것 같다고 친구들끼리 얘기했던 게 생각나네. 물론 제도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그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분류하는 기준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23살에 ‘취업 센터’에 찾아간 나는 너무 늦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취업 센터’를 운영 중일 거야. 나도 4학년 때 찾아 방문했는데, 센터 상담사들이 학생인 나를 하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 이유는 4학년 때 찾아갔기 때문이야. “너는 너무 늦었고,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면서, “왜 대학교에 와서 취업 준비를 안 했냐”고 따져 묻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23살이었어. 또 생각해보면 그 상담사라는 사람들도 학생을 사회의 역군으로 만드는 실적이 필요했겠다 싶어. 취업 센터에서 자소서 상담, 공기업 취업 설명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았지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그만뒀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당신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될 수 있을까?

졸업하고서는 혼자 취준했지.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 이하 취성패)를 했어. 제일 대중적인 취업 정책이기도 해. 나는 공무원 자녀이니까 원래는 어떤 지원을 받기가 힘든데, 취성패는 소득분위를 크게 보지 않는 정책 중 하나여서 참여할 수 있었어.

돈 때문에 하는 거지. 총 3단계가 있는데, 나는 1단계(진단, 경로 설정)를 거쳐 2단계(의욕, 능력 증진)는 패스하고 3단계(집중 취업알선)로 갔어. 그런데 그 과정이 형식적이어서 대충 참여하게 돼. 어쨌든 3단계에 가서 나를 내가 관심 있는 직군으로 지원했는데, 자꾸 서류 탈락만 되고 면접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깐, 내 담당자가 조건이 안 좋은 곳을 자꾸 추천해주는 거야. 서류에서 통과하고 면접 과정을 밟아야 그게 실적이 되나 봐. 그러면서 내 담당자는 “요즘 애들은 이런 자리도 없어서 난리인데, 너는 왜 이걸 안 하려 하느냐”며 마치 “네 수준은 여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담당자가 추천해준 곳은 퇴근이 매우 늦거나, 출퇴근 거리가 멀거나, 전문성이 없거나, 내 관심사와 맞지 않는 곳이었어. 그렇게 취업하는 게 현실인가, 취업하기만 하면 땀인가 싶기도 했어. 그렇게 취성패 기간이 끝났고, 또다시 혼자 취준했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그것은 달콤한 족쇄.

결국 취뽀했지. 나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었어. 이게 일한 지

한 달 안에 신청해야 해서, 사실 내가 이 회사에서 2~3년을 다닐 수 있는 지 충분한 파악이 되지 않은 채 급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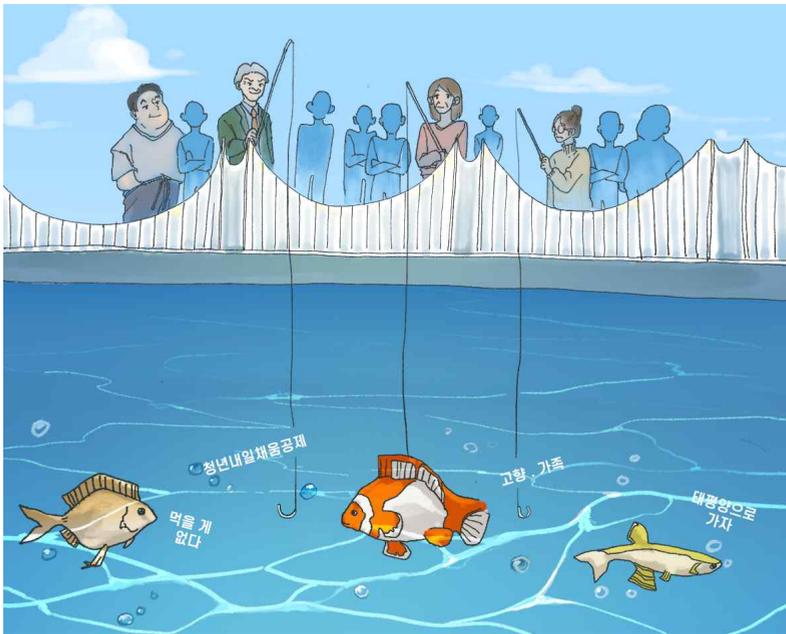
근속을 장려하는 정책이라... 그래, 회사에 다니는 걸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겠지.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99개인데, 그 돈이 족쇄가 돼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한다면, 이게 과연 이 정책에서 목표한 '근속'일까? 공제 금액을 연봉에 포함해서 취업 공고를 띄우는 회사도 많아. 또는 이런 계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공제를 신청해주지 않던지. 노동자는 눈 감고 할 수밖에. 큰돈에는 큰 위험이 따르겠지.

청년들이 자주 일을 그만두는 본질적인 이유는 찾지 않고, 일을 그만두지 않게 해야겠다며 족쇄 같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일의 본질이 아닌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고 봐. 그리고 요즘은 이직을 통해 커리어를 개발해 나가는 분위기인데, 한 회사에서의 근속을 장려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 아닐까?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달콤한 족쇄에도 불구하고 내 발로 퇴사한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 수직적이고 가부장적인 회사 분위기, 허리는 없고 고인물과 신입만 있는 조직이었기 때문이야.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은 프리랜서도 많은데, 아예 이 정책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청년들도 많겠다.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지. 엄밀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 떠난 거겠지.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것은, 이 지역이 청년들의 다양한 가능성과 니즈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환경이라는 뜻일 거야. 나는 내 전공과 다른, 어느 회사에나 있는 마케팅이라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남을 수 있었어. 바로 나같이 부산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청년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회사들이 굴러갈 수 있는 거야. 부당하면 일 못 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오는 청년들이 있다면 회사는 변화하거나 망해서 없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를 메꾸니까, 허리를 나가고 고인물과 신입만 남는 회사만 존재하게 되겠지. 부산에 청년은 없어져야 해.”



부산광역시의 청년디딤돌카드가 내게 준 것은 취준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퇴사 후 바로 취업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취업 시장이 확 좁아졌어. 공고량 자체가 줄었더라. 그쯤 내 인생 최초로 집안 사정으로 인해 소득분위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청년구직지원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됐어.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그 안에서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금으로 50만 원을 줘. 그 돈은 식비, 옷 등 다양한 명목으로 쓸 수 있어. 나는 이것이야말로 청년들이 생활비로 인해 힘들어한다는 걸 처음으로 이해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 부산시에서 면접비, 정장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취업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취업을 하기 이전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 사람이고, 알바라도 하면 그만큼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건데, 50만 원은 시간을 벌어드 주는 거잖아. 누군가에게는 면접이 한 달 남았는데 알바를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끼니는 굶는 이들에게 든든함이 될 수도 있고, 정장 한 벌을 살 수도 있어. 내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제도였어.

취업 쇼, 끝은 없는 거나.

취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나의 정보를 등록하게 되잖아. 그래서 각종 취업 박람회, 구직 공모, 면접에 대한 광고가 문자로 와. 한 날은 그 문자를 통해 공개채용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그날은 정말 최악이

었어. 1차 서류 면접을 통과하고 간 면접이었는데, 면접을 보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 1차 서류 면접은 그냥 통과하는 거였나 봐. 한 회사 면접을 한 조당 지원자 6~7명이 동시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면접관은 1명이었어. 우리한테 자기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에 관해 물어보고, 노트북에 막 옮겨 적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 결국 우리 아이디어를 수집한 후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기술직이었던 거지. 그날 또 다른 면접에서는 첫 번째로 면접에 들어간 여성분은 5분 만에 나왔는데, 두 번째로 면접에 들어간 남성분은 30분 동안 면접을 보더라고. 나는 세 번째였는데 5분 만에 끝났어. 이 회사가 원하는 건 남자였는데, 걸러서 지원자를 받을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모두 다 면접을 본 거였어. 차라리 서류에서 걸렸으면 굳이 떨어질 면접에 갈 헛수고를 하지 않을 텐데. 이게 다 취업 쇼 아니겠냐.

너는 돈이 많아도 직장을 계속 다닐 거야?

“나는 돈이 많다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정말 많이 마주쳤는데도
돈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었거든.”

그럼 일을 안 하면 뭘 하고 싶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고 싶어.”

만든 사람들

글 김유진 박민규 박주현 양보원 조유진 최희수 김영랑

교정교열 박민규 최희수

표지 사진 박주현

표지 디자인 임효원

삽화 디자인 정영림

코디네이터 김유진

도움 주신 곳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문화재단